

祈雨문화의 맥락을 통해 본 <최고운전>의 형성

이지영*

1. 서론
2. 최치원에 대한 하층의 기억
3. 기우문화의 소설적 변용을 통해 본 작자의식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고운전>의 형성을 기우문화와 관련시켜 고찰했다. 최치원은 신라 말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민간설화에서는 금돼지 자식으로 이야기된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최치원을 하층의 노비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유몽인의 시에서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금돼지설화는 소설 이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작제건설화에서 작제건이 버드나무 지팡이[楊杖]와 함께 용왕에게 받아들인 선물이 금돼지인 것에 착안하여 금돼지가 기우제의 문화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치원 역시 기우제와 관련되어 전승되기도 하여 금돼지와 최치원은 기우문화의 맥락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최고운전>은 이러한 기우문화의 배경 안에서 금돼지설화와 이목설화를 수용하면서도 최고운을 유가문명의 담지자로 그리고 있다. 즉, 최고운을 금돼지 자식이 아닌 최충의 자식으로 변형하고 유학을 하는 천하의 문장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돼지설화와 이목설화가 바탕하고 있는 하층의 문화와 유학과 문장이 표상하는 상층의 문화는 긴장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들의 어색한 공존은 유가적 질서를 통해 정비되어가던 조선시대 기우문화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최고운전>, <최문헌전>, 최고운, 최충, 금돼지설화, 기우제, 기우문화, 아래자설화, 작제건설화, 이목설화

1. 서론

<최고운전>¹⁾은 역사적 인물 최치원의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꾸며낸 소설로 『수이전』 逸文으로 전하는 『태평통재』 所載 <최치원>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정병욱이 ‘신독재수택본’ 소재 이본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졌다.²⁾ 초기에는 중국으로 건너간 최치원이 황제와 대결하는 내용에 주목하여 양란 이후 민족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하였³⁾, 도가적인 소설로 해석되기도 하였다.⁴⁾ 또 설화적 요소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⁵⁾

-
- 1) 이본에 따라 <최치원전>, <최문창전>, <최충전>, <최문헌전> 등 다양한 제목이 있지만 傳奇 <최치원>과 구별하고 최치원이 주인공임을 명시하여 ‘최고운전’이라 한다. 또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운전>의 주인공을 지칭할 때는 ‘최고운’이라 하여 역사적 인물 최치원과 구별하고자 한다.
 - 2) 정병욱, 『<최문헌전 소개>』, 『용재 백낙준 박사 환갑기념 국학논총』, 사상세계사, 1955.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에 재수록.)
 - 3) 예를 들어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를 들 수 있다.
 - 4) 대표적으로 최삼룡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치원의 인물설화와 <최고운전>』,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5)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그런데 이 작품이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김현룡이 『효빈잡기』 기록을 근거로 1579년을 창작시기의 상한선으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⁶⁾ 이를 계기로 초기소설로서 <최고운전>의 문학사적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기소설과 영웅소설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중심으로 초기소설로서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고운전>은 한문으로 창작되었으며 삽입시가 다수 들어 있다는 점에서는 전기소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영웅적인 주인공의 출생과 성장, 입공을 일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웅소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운전>에 삽입된 시는 기존의 詩話에서 차용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기의 양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최고운전>은 傳奇 외에도 당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한문산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선 초부터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잡록류와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삽입된 이야기 중에는 당대 잡록류에 수록된 것도 발견되고 있으며 여러 삽화가 느슨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기보다는 잡록류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성현의 『용재총화』를 비롯한 잡록류에서는 당시의 설화를 다수 수록하고 있는데, 민간설화를 한문으로 옮기는 잡록의 전통이 <최고운전>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운전>을 구성하는 대다수 삽화는 당대 설화의 수용일 가능성이 높다.

설화의 수용에 대해서는 정병욱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최고운전>과 유사한 내용의 설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⁷⁾ 그러나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최고운전>의 형성과정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 <최고운전>의 금돼지 이야기를 아래자설화와 지하대적퇴치담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면서 작품에 내재된 작자의 저항의식을 추출하기도 하였는데⁸⁾ 설화의 수용양상을 넘어서 작자의식을 밝히고자 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형성에 미친 설화의 영향보다는 <최고운

6)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7) 한석수, 앞 책.

8)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16, 한국고전문학회, 1997.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11-143면에 계수록)

전>의 작자의식에만 집중하여 해석한 감이 있다.)⁹⁾

이 글은 <최고운전>이 최치원에 대한 당대 하층의 기억에서 형성되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최치원에 대한 하층의 기억은 설화를 넘어서 당시 민간의 풍속까지도 포함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기우제와 최치원의 관계이다. 노성미는 마산의 돌섬 기우제와 옥구 기우제의 최치원 전승을 그의 불우함이 제의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그런데 <최고운전>에 금돼지설화와 이목설화가 수용된 것으로 볼 때 기우제를 중심으로 한 하층의 문화는 좀더 깊숙하게 작품의 형성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최치원과 기우제의 관계에 대해서 추적해 보고 이를 토대로 <최고운전>의 형성맥락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최치원에 대한 하층의 기억

1) 상층 기록과 하층 기억의 거리

최치원에 대한 공식적 기록 중 대표적인 것이 『삼국사기』 列傳이다.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생으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황소의 난 때 쓴 글로 이름을 알렸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신라 말의 어려운 상황에서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은거하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했다. 여기에서 최치원은 불우한 인재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에 힘입어 최치원은 이후 시대를 만나지 못해 속세를 버리고 떠난 신

9) 또한 박일용은 최근 『화동인물총기』에 수록된 <최고운전>의 결말이 『삼국사기』 <최치원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고운전>이 『삼국사기』 <최치원전>을 변용하여 아비에게 버림받는 최고운의 형상을 창작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최고운전』과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그려진 최치원의 인물형상, 『고소설연구』32, 고소설학회, 2011.) 그러나 『화동인물총기』의 연대 추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여기에 수록된 <최고운전>이 여타 <최고운전>보다 앞선 형태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최고운전>을 『삼국사기』 기록에 맞게 변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의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 노성미, 『최고운전』의 기우모티프와 골섬기우제 비교 연구, 『배달말』54, 배달말학회, 2014.

선으로 기억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전기 서거정이 <월영대> 시에서 “孤雲孤雲眞儒仙, 天下四海聲名傳...飛昇已作上界仙, 桑田滄海今千春”¹¹⁾라고 한 것처럼 최치원은 신선이 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서거정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최치원의 유적지마다 최치원의 행적을 기리는 시를 남기곤 하였다.

더욱이 『해동전도록』에서는 최승우가 최치원에게 도법을 전수하였다고 하였고 『오주연문장전산고』의 <道教仙書道經辨證說>에서는 동방 丹學의 鼻祖가 되었다고 하였다. 최치원을 신선으로 보려는 시각은 가야산 은거 이후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다. 『삼국사기』에는 “최후에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여 형인 승려 현준 및 정현사와 도우관계를 맺고 한가로이 노닐다가 늙어죽었다.(最後, 帶家隱伽耶山海印寺, 與母兄浮圖賢俊及定玄師, 結爲道友, 棲隱偃仰, 以終老焉)”고 하여 신비한 이미지는 강하지 않은데, 조선시대 심광세의 악부시 서문에서는 “그 뒤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에 은거하였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세상에서 알지 못한다(後遂携家隱伽耶山, 世莫知所終)”라고 하여 좀더 신비한 인물로 기록하였다. 가야산 은거 이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최치원을 신선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그가 죽지 않고 신선으로 살아있다는 식의 신비화는 최치원에 대한 사대부들의 연민과 공감의 정서 속에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러나 현전하는 최치원 관련 설화에서 최치원을 세상을 등진 신비한 인물로 등장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구비문학대계』에서 조사한 36편 중 신선이 된 최치원에 관한 설화는 세 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최치원에 대한 하층의 기억이 상층에서 기록한 바와는 다름을 암시한다.

오늘날 민간에서 전하는 최치원 관련 이야기의 상당수는 최치원을 금태

11) 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이하 고전번역원 사이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주석 생략함.)

12) 이익은 『성호사설』 <經史門> ‘崔文昌’조에서 최치원이 고려 왕건을 몰래 도왔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하며 최치원의 절의를 문체 삼았으며 최치원이 불가에 아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묘에 배향된 일을 비판한 퇴계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묘배향이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치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했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대부들은 최치원을 속세를 떠난 신선으로 기억하였다.

지 자식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사한 36편 중에서 23편은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임을 언급하고 있고¹³⁾, 나머지 설화 중에서 4편은 출생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서술하고 있는데, 최치원 이야기의 구연자가 최치원을 금돼지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서 출생부분을 축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금돼지 관련 내용을 구연자가 알고 있지만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기억하는 최치원은 대체로 속세를 등진 소외된 인물이기보다는 금돼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뛰어난 글재주를 지닌 문화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치원 관련 설화의 상당수는 탄생에서부터 파경노가 되어 석함의 물건을 맞추고 중국황제와 대결하는 내용까지 소설과 흡사하여¹⁴⁾ 소설이 설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광수는 전국적으로 <최고운전>과 유사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소설이 설화로 전승된 것으로 보았다.¹⁵⁾ 그러나 현전하는 최치원 설화가 부분적으로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최고운전>을 구성하는 여러 삽화는 당대 설화의 수용이 아닐까 한다. 기록서사에는 찾아보기 힘든 무속적이고 설화적인 색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¹⁶⁾, 여러 삽화가 느슨하게 연결되고 있는

13) 이는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중 ‘최고운’ 혹은 ‘최치원’, ‘금돼지’ 등의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설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면 결과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4) 대개 8-11 경상남도 의령군 한진식이 구연한 것을 예로 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마산에 부사로 내려온 사람의 아내가 예뻐다.
- ㉡ 부인에게 번고가 있는 줄 짐작하고 명주실을 몸에 꽂아 두었다.
- ㉢ 밤중에 부인을 찾을 실을 따라 돌섬의 굴로 갔다.
- ㉣ 돼지를 잡고 난 후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
- ㉤ 부사가 창피해 아이를 돌섬에 버리니 학이 키웠다.
- ㉥ 열한 살이 된 아이는 서울로 가서 거울을 고치며 다녔다.
- ㉦ 정승 딸의 거울을 깨서 그 집 종이 되었다.
- ㉧ 정승딸은 꽃밭에 물을 주는 일을 하는 파경노를 마음에 두었다.
- ㉨ 정승이 중국에서 온 석함의 수수께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였다.
- ㉩ 정승의 딸이 파경노를 추천하여 나라에서는 벼슬을 시키고 정승의 사위로 삼았다.
- ㉪ 정승의 사위가 된 파경노는 벽에 큰 종이를 붙인 뒤에 자면서 발로 시를 적어 놓았다.
- ㉫ 중국에서 석함을 열고는 시의 내용처럼 계란이 병아리가 된 것을 알았다.
- ㉬ 최고운 선생이 중국에 가서 벼슬을 하였다.

15) 유광수, 「<최고운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 설화의 연원」, 『한국문화연구』39,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0.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현(1439-1504)은 <透琳上人遊智異山序>에서 “고운은 우리나라 문장가의 시조로, 노비들까지도 모두 그 이름을 알고 사모합니다(孤雲我國文詞之祖。雖奴隸，皆知其名而慕之)”라고 하였다. 15세기 노비들이 기억하는 최치원은 상층 기록이나 소설이 아닌 설화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당대 하층에서 전승되던 최치원설화의 내용은 유몽인과 고상안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인물로 최치원에 대한 동일한 기억을 전하고 있다. 먼저 유몽인(1559-1623)은 『頭流錄』의 <懷賢>에서 “세상에서는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이라 하는데, 가야산에서 문장을 공부했다네(世傳崔子金猪產，鍊業伽倻文字工)”라고 하여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당대 세간에 전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유몽인의 이러한 언급이 소설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금돼지 자식이 아니라 최충의 자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고상안(1553-1623)의 『효빈잡기』 역시도 유몽인의 시와 유사한 내용을 전한다. 『효빈잡기』에는 <최문창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文昌’은 고려 때 내려진 최고운의 시호로 <최문창전>은 <최고운전>의 다른 제목이다. 이 제목은 그동안 <최고운전> 창작의 상한선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최문창전>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금돼지의 일을 실은 것이 자못 상세하여 가만히 그럴 듯하다고 여겼다. 뒤에 당사를 읽어 보니 구양순이 원숭이를 닮아서 당시 사람들이 <백원전>을 지어 그 어버이까지 비방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금돼지 이야기가 호사자들이 <백원전>을 모방한 데서 나온 것임을 의심할 바 없었다. (出崔文昌傳以示之，未知何人所作，而載金猪事頗詳悉，竊以爲或然矣。後閱唐史，看他歐陽詢酷似獼猴，時人作白猿傳，謗及其親。然後，知金猪之說，出於好事者以效顰百猿也無疑。)¹⁶⁾

16) <최고운전>의 무속적이고 설화적인 색채에 대해서는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소설사의 한 국면』, 『고소설연구』14, 한국고소설학회, 2002에서 지적한 바 있다.

17) 박희병, 『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249면에서 제인용. 이하 <최고운전>의 인용 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

위의 기사에서 고상안은 <최문창전>에 수록된 금돼지 기사가 자못 자세하여 그럴듯하게 여겼는데, 후에 唐史를 읽다보니 금돼지 이야기도 호사자들이 <백원전>을 모방하여 지어낸 것이 틀림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고상안은 <최문창전>(최고운전)을 이 때 처음 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고상안이 금돼지 이야기를 이 때 처음 들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금돼지 일이 자세하여 그럴듯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금돼지의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당시 금돼지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 본 바 없고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이야기라면 ‘金猪事’라고만 서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¹⁸⁾ 또한 유몽인의 시구에서 세상에서 최치원을 금돼지 자식이라고 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고상안이 금돼지설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이라고 한 설화는 <최고운전> 이전에 이미 전승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기우제를 매개로 한 최치원과 금돼지의 관계

그렇다면 조선 전기 민간에서 최치원은 왜 금돼지 자식으로 알려진 것일까?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고군산도의 최고운신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라북도 옥구군에 자천대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최고운 선생이 노닐던 유적이라 전한다. 군의 남쪽 바다 가운데 섬이 있으니 고군산 군도이다. 주위는 2백여 리나 되며 섬에는 금저굴이 있는데, 그 깊이는 알 수 없고 금저굴 앞의 바다를 금저양이라 한다.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옛날에 금빛 털을 가진 돼지가 살던 굴로서 자못 신통함이 있었다’고 한다. 『요재지이』에서 말하는

18) 유광수, 앞 논문, 2010에서는 고상안이 <최문창전>을 매우 신기해하며 금돼지 문제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까지 금돼지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고상안이 “매우 신기해하였다”고 볼 만한 문구는 없다.

강남 오통의 일과 비슷하다. 신라말 최충이 이 고을 태수였는데, 최충의 처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최치원이라 했다.....중략.....그 섬에 있는 일영대는 선생이 거문고를 타던 곳이라 한다. 지금도 섬사람들은 선생의 인격을 사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천신처럼 받들고 있다.¹⁹⁾

이능화는 위 인용대목에서 자천대와 금저굴과 관련된 최치원 전설을 서술한 뒤에 이것이 『요재지이』의 <오통>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최치원 관련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최치원의 아버지가 최충이며 섬의 옛 이름이 문창군이라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최고운전>의 줄거리와 흡사하다. 현전하는 설화에서 최충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능화가 구비전승되는 옥구군의 설화를 전한 뒤에 <최고운전>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자천대 전설은 『택리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능화의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

임피의 서쪽은 곧 옥구로 서해바다에 임해 있으며, ‘자천대’가 있다. 작은 산기슭이 바닷가 섬으로 이어지는데, 위에 두 개의 석룡이 있다. 신라 때 최고운이 태수가 되어 秘書를 그 석룡 중에 숨겼는데, 석룡에는 곧 큰 거대한 돌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열수가 없었다. 사람이 혹 끌어당기면 바다위에 풍우가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매번 가뭄이 들면 수백인이 거대한 밧줄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바다의 비가 쏟아져 논과 밭을 흡족하게 적셔주었다. 매번 使客이 오면 문득 가서 구경하고자 하여 마을의 폐가 되니, 고을 사람들이 괴로워하였다. 오래전 정자가 있었으나 백 년 전에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석룡을 헐어버려 자취를 없이 하였다. 지금은 가서 구경하는 자가 없다.²⁰⁾

『택리지』의 위 기록에서는 최치원이 이 고을의 태수로 있었으며 그가 비서

19)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사, 2008, 453-453면.

20) 이증환,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의 번역 참조.

를 숨긴 석룡이 비를 부르는 데 영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참조하면 아마도 최치원이 남긴 글이 기우제에 이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노성미는 옥구의 자천대설화와 함께 마산의 돌섬설화에서 최치원이 기우제와 관련하여 신화화된 인물로 전승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¹⁾ 노상미가 인용한 『마산야화』에 기록된 마산 돌섬 설화는 다음과 같다.

<마산 돌섬 설화>

- ㉠ 가락국왕의 딸이 어느 날 사라졌다.
- ㉡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한 어부가 마산 앞바다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 ㉢ 왕이 특사를 보내어 환궁하기를 재촉하니 공주는 금돼지가 되어 바위틈으로 사라졌다.
- ㉣ 이후 젊은 여자들이 잡혀하는 변괴가 생기자 군대를 보내어 포위했다.
- ㉤ 금돼지는 요운이 되어 사라졌다.
- ㉥ 이후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와 광채가 나자 최치원이 화살을 쏘자 광채가 사라졌다.
- ㉦ 최치원이 화살이 쏘인 곳에 제를 올리자 괴이한 일이 사라졌다.
- ㉧ 최치원이 제를 올린 곳에서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

최치원이 돼지의 변괴를 해결한 신성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옥구의 사례와 유사하다. 현전하는 설화 외에도 허목이 <월영대기>에서 “마산 월영대에서는 무당이 날마다 북을 치고 종잇조각을 걸어 놓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한다”²²⁾고 한 것을 보면 최치원의 유적지가 하층에서는 무속적인 神聖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산의 돌섬설화는 최치원을 금돼지 자식으로 전하고 있는 다른 설화와 달리 최치원이 금돼지를 퇴치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손진태가 전하는 돌섬의 전설에서는 최윤덕이 돼지를 죽이고 최치원은 후에 금돼지의 괴이한 울음소리가 나자 최치원이 화살을 쏘아 제압

21) 노상미, 앞 논문.

22) 허목, <월영대기>(고변번역원사이트의 국역 『기언』 참조)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²³⁾ 이처럼 돼지와 최치원의 관계가 각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돌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²⁴⁾으로 보아서는 최치원과 기우제, 그리고 금돼지 간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작제건설화이다. 작제건이 용왕에게 선물로 받아 온 것이 금돼지였기 때문이다. 김현룡은 작제건설화에서 등장한 돼지가 최고의 탄생에서 등장하는 금돼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²⁵⁾ 작제건설화에서 당 태종을 만나러 서해를 건너던 중에 서해 용왕의 부탁으로 늪은 여우를 퇴치하고 선물로 받은 보물이 돼지[豚]며 <제왕운기>의 ‘金毛豕’임을 주목한 것이다. 김현룡은 이 기록에 대해서 작제건의 시대가 최치원 아버지의 생존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금돼지를 최치원 탄생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작제건이 돼지와 함께 버드나무 지팡이[楊杖]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금돼지는 기우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능화는 성현의 『용재총화』를 인용하여 조선 시대 사람들이 비를 빌기 위해서 성안의 집집마다 병에 물을 담고 버드나무 지팡이[楊杖]를 꽂았다고 하였고²⁶⁾ 또 조선 시대 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이러한 기우의례가 조선시대에 행해졌음을 확인한 바 있다.²⁷⁾ 이러한 기록을 참조할 때, 작제건이 용왕에게 받은 버드나무 지팡이와 금돼지는 모두 祈雨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산 지역에서 가뭄이 들 때 돌섬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도 금돼지와 기우제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조사에 의하면 마산 지역 기우제에서는 생돼지를 용왕신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²⁸⁾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작제건이 버드나무 지팡이[楊杖]와 함께 금돼지를 선물로 받은 것은 기우제에서 돼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마산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우제에서 돼지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기우제에서 호랑이 머리를 용이 거처하

23) 손진태, 『전설에 나타난 도야지 이야기-마산의 돌섬과 금도야지』, 동아일보 1935.1.10.

24) 동아일보 1938.8.2일자 기사.

25) 김현룡, 앞의 논문.

26) 이 구절의 원문은 “又於城內萬落，貯水瓶插楊杖焚香”이다.(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27) 이능화, 앞 책, 118면.

28)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향토신사』, 경성, 232쪽(노성미, 앞 논문에서 재인용)

는 연못에 넣었다는 하였는데²⁹⁾ 현재까지 전승되는 민간의 기우제에서는 호랑이 머리를 대신하여 개나 돼지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그런데 옥구와 마산 지역에서 최치원은 왜 기우제와 관련하여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선행연구에서 주장했듯³¹⁾ 이 지역에서 최치원이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우제에서도 최치원이 거론되었던 것인가. 혹시 최치원이 기우제의 주재자였기 때문은 아닐까?

이에 대한 단서는 『계원필경』에 수록된 여러 편의 齋詞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齋詞는 도교적 의례인 齋醮에서 사용된 제문이다. 최치원의 齋詞는 당나라 때 쓴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그가 도교 행사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재사는 고려시대 靑詞의 양식적 표본이 되었다.³²⁾ 또한 도교적인 재초례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 기우제였던 만큼 최치원과 기우제의 관련은 그가 지은 재사를 매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관리로 부임했을 때 密書를 石籠에 감추었고 석룡을 움직이면 비가 왔다는 옥구 지역의 설화도 최치원과 재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최치원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祈雨를 위한 재초례를 지내고 재사를 지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문장가로서 최치원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신이한 행적으로 전승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당나라 관리였던 최치원이 신라에 돌아와서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였던 도교식 기우제를 設行한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도 있다.³³⁾

현전하는 기록에서 기우제의 주재자로서 최치원에 대한 기록이 뚜렷하

29) 이능화, 앞 책, 122면.

30) 최종성,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종교학연구』16, 1997, 185면.

31) 노성미, 앞 논문.

32) 양은용, 『고려시대의 도교와 불교』, 『도교와 한국사상』(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범양출판부, 1987 참조. 그런데 양은용은 도가의례에서 사용하는 재사와 청사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김승혜는 왕의 제축문인 청사를 도사 및 신하가 올리는 제문인 재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승혜, 『동문선 제초청사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같은책.)

33) 전덕재는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 의례를 수용하여 기우제를 정비하였다고 하였다(『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책』, 『한국사연구』160, 한국사연구회, 2013) 당나라 기우제가 주술적 형태에서 제의적 형태로 정비되어 가던 정황에 대해서는 김상범, 『주술에서 의례로』, 『중국학보』45, 한국중국학회,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풍백과 우백에 재사를 지내는 당나라의 기우제는 무속 뿐 아니라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는 않다. 아마도 도교적인 기우제가 설행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민간의 설화에서 최치원이 금돼지 자식으로 혹은 금돼지를 퇴치한 인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우제와 관련한 최치원에 대한 민간의 기억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기우문화의 소설적 수용을 통해 본 작자의식

1) 설화의 수용과 변용

박일용은 <최고운전>의 작자가 아래자설화를 수용하되 지하대적퇴치담을 끌어와 금돼지설화를 만들었다고 했다.³⁴⁾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처럼 금돼지설화는 소설 이전에 전승되고 있었다. 금돼지설화가 소설 이전에 존재했다면, 아래자와 지하대적퇴치담의 결합은 <최고운전> 작자의 所作이 아닌 하층문화의 所産일 것이다.

금돼지설화와 아래자설화의 연관은 기우문화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백제 무왕과 견훤 설화 등 아래자설화의 사례에서 등장하는 ‘용’ 혹은 ‘지렁이’ 는 기우제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작제건이 용왕에게서 받은 버드나무 지팡이[楊杖]와 금돼지 역시 기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용, 지렁이, 금돼지는 동일한 문화적 의미, 즉 祈雨의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기우문화의 맥락 안에서 금돼지설화는 아래자설화의 변이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우문화와 <최고운전>의 연관은 이목의 등장 장면에서도 짐작된다. 용왕의 아들 이목이 최고운을 찾아와 제자 되기를 청하고 최고운이 이목을 시켜 위기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은 『삼국유사』 <보양이목>을 포함한 일련의 이목설화와 유사하다. 여기에서 이목은 ‘이무기’를 인격화한 이름으로 용신숭배 및 기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⁵⁾ 따라서 이목의 등장은

34) 박일용, 앞 논문, 1997.

35) 천혜숙, 삼국유사 보양이목 설화의 전승론적 검토,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45면.

기우제의 주재자였던 최고운의 이미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목을 만나는 장면에서 당나라로 가는 도중 배가 침성도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나가지 않아 최고운이 배에서 내려 섬에 오른다는 내용은 작제건설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물론 거타지설화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고운이 신이한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는 거타지설화보다 작제건설화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돼지와 버드나무 지팡이가 등장하는 작제건설화가 기우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제건설화의 수용은 예사롭지 않다.

정리하자면 <최고운전>에 수용된 금돼지/야래자설화와 이목/작제건설화는 모두 기우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는 최고운을 기우제의 주재자로 기억하는 문화적 기억이 <최고운전>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금돼지와 이목설화는 소설에 수용되면서 미묘하게 변형되었다. 우선 소설에서는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이 아닌 최충의 아들로 서술된다. 앞서 살펴본 유몽인의 시와 고상안의 기록 등에 나타난 당대 설화에서는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이었는데, 소설에서는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임을 강하게 부정한다. 소설에서 최고운은 달수를 계산하여 자신이 금돼지 자식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또 얼굴이 닳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돼지 자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³⁶⁾

무엇보다 최고운의 아버지가 ‘최충’으로 설정되고 있는 점은 중요한 변화이다. 현전하는 거의 모든 설화에서 최고운의 아버지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³⁷⁾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임을 부정하면서 아버지를 최충으로 명명하여 그 존재를 구체화한다.

그런데 역사적 실존인물인 최충은 고려시대 인물이어서 신라인 최고운

36) “況我之慈母，姪我三箇月至文昌，未幾爲金猪所失，偷月得母，六月而生我，以此觀之則，我豈爲金猪之子乎，我若金猪之子，則我之耳目口鼻，豈非如金猪之耳目口鼻乎?”

37)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서 전하는 옥구의 전설에서는 최충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조선무속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듯하지만, 여기에서는 설화의 일반적인 속성상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래의 내용에 가깝다고 본다.

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현룡은 <최고운전>의 최충은 고려시대 최충과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³⁸⁾ 그러나 신독재 수택본의 제목은 <최문헌전>이다. ‘文憲’이 최충의 시호였다는 점에서 당대 독자가 최충을 고려인 최충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작자 역시 이를 의식하고 명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석수는 최충을 등장시킨 것은 최고운의 父系를 미화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았다.³⁹⁾ 최충의 명성을 빌어서 최고운의 혈통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최충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지 미화의 의도보다는 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조선시대 최충은 ‘海東의 孔子’로 불리며 유교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는 문묘배향에 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⁴⁰⁾ 그리고 최고운은 고려시대에 이미 문묘에 배향되었던 인물이다. 최고운의 문묘배향에 대해서 퇴계를 비롯한 많은 사대부들이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최고운의 배향이 철폐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최고운과 최충은 문묘에 배향되거나 문묘배향과 관련하여 거론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교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동일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⁴¹⁾

그런데 문묘에 배향된 최고운은 기우문화의 맥락에서 형성된 하층의 기억과는 거리가 있다. 최고운을 굳이 최충의 아들로 설정한 데는 그를 유가적 인물로 그리려는 작자의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목과 만나는 대목에서 최고운의 유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목이 최고운을 만나 제자 되기를 청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우리 땅은 인간의 땅과는 달라서 공자의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배우고자 하여도 학문을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항상 자탄하기를

38) 김현룡은 소설의 최충이 해동공자 최충과 동일인물이 아니기에 <최문헌전>이라는 명명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명칭”이라고 하였다.(김현룡, 앞 논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39) 한석수, 앞 책, 79면.

40) 이성호, 최충에 대한 역대 인식 변화와 문묘중사 논의의 이해, 《역사와 경계》 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참조.

41) 박일용은 최치원의 아버지가 고려시대 인물 ‘최충’인 것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최치원의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왜 하필 ‘최충’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박일용, 앞 논문, 2011, 23면 참조.)

‘나는 무슨 죄로 이런 곳에 잘못 태어나서 공자의 도를 배울 수 없는가’ 하였는데, 이제 뜻밖에 천하의 문장을 만났으니 하늘이 저로 하여금 성인의 도를 배울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夫我之地, 與人間之地殊異, 無孔子之學, 故縱欲學書, 無由得學, 是以我常自歎曰‘我何作罪, 誤生此地, 不得聞孔子之道也’ 今者偶逢天下文章, 豈非天欲使我得聞聖人之道耶)

이목은 ‘공자의 학문/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천하문장인 최치원을 기다렸다. 여기서 최고운은 성인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유자로 그려진다. 학문이 없는 불모의 땅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던 이목은 최고운을 통해 유학을 배우고자 한다.

최고운의 유자로서의 면모는 위이도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섬사람들은 최고운이 덕이 있는 문장가이기 때문에 최치원의 기도를 하늘이 반드시 들어주리라고 믿고 있다.⁴²⁾ 최고운의 인품과 문장이 비를 내리리라는 위이도 사람들의 기대는 유가적인 기우방식과 관련이 있어서 최고운의 유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도교적 기우제에서 중시되던 문장가로서 최고운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유가적 문장가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적 기우방식은 금폐지 및 이목설화와 관련이 있는 민간의 기우문화와는 이질적이다. <최고운전>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전기에 국행기우제가 유가를 중심으로 정비되어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고운이 유가적 기우제의 주재자로 그려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최고운의 유가적 이미지는 바로 당대 기우제의 정비 상황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유가문명에 대한 이중적 태도

그러나 최고운의 유자로서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유가적 사유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듯하다. 위이도에 비를 내린 인물은 유가적 덕목을

42) “人賢且文章, 而苟以至誠禱之, 則天必應之”

갖추었다고 추앙된 최고운이 아니라 용왕의 아들 이목이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천승을 보내 이목을 죽이려 할 때, 천승은 위이도에 가뭄이 든 이유로 섬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 불목하는 등 부도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⁴³⁾ 이러한 천승의 발언은 기우제와 관련한 유가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린 주체가 최고운이 아니라 이목이라는 점은 유가에 대한 작자의 모호한 태도를 말해 준다.

또한 최고운이 최충의 자식으로 서술되기는 하지만, 소설에서는 여전히 최고운이 금돼지의 혈통인지 최충의 자식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금돼지가 사는 공간은 넓고 비옥한 땅에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신선세계’로 그려지고 있기에 신선세계의 천궁 같은 집에 사는 금돼지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금돼지는 하늘의 선녀가 젖을 먹이고 하늘의 선비들이 글을 가르치는 최고운과는 ‘신성성’의 측면에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충의 자식이 틀림없다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최고운의 父系에서 금돼지를 지우지 못한다.

최고운이 여불위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식을 버린 최충을 비난하는 대목에서도 금돼지와 연관은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미희가 낳은 아들이 여불위의 자식인줄 알면서도 秦王은 차마 버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분명한 데도 자식을 버렸다면 최고운은 최충을 비난하였다.⁴⁴⁾ 최고운이 최충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구출된 지 여섯 달 만에 자신을 낳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은 금돼지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돼지에게 구출되는 과정에서 시간서술이 분명하지 않고 최치원의 신이한 행적이 나약한 최충보다는 금돼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돼지의 임신기간과 사람의 임신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달수를 계산하여 자신이 최충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여불위의 고사는 최치원이 설사 금돼지의 자식이라도 최충이 받아들

43) “不孝父母，兄弟不睦，欺其貧”，凌轢長上，風俗深惡”

44) “昔者 陽翟大賈不韋，納美姬，知其有娠而遂獻于秦王，七月而生，所娠之兒，實是呂氏，而秦王猶不忍棄之，而況我之慈母，妣我三箇月至文昌，未幾爲金豬所失，偷月得母，六月而生我，以此觀之則，我豈爲金豬之子乎，我若金豬之子，則我之耳目口鼻，豈非如金豬之耳目口鼻乎?”

여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시황은 여불위의 자식이면서도 진왕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시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목에서 최고운은 중국을 떠날 때 소매에서 꺼낸 ‘豮를 푸른 사자로 변화시켰다. 금돼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고운이 금돼지 자식이라는 점이 이 대목에서 확인된다. 소설의 작자는 최고운의 아버지로 최충을 설정했지만, 금돼지와 최고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목과 최고운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최고운은 이목이 추앙하는 천하의 문장가이자 儒者이지만, 용으로 변한 이목의 모습을 보고 낯을 잃고 쓰러져서 얼마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失魂卜地, 須臾復甦 이목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 천하의 문장이 최고운이 이목에게 오히려 압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목설화의 스님과 이목의 관계를 기우문화를 둘러싼 토착신앙과 불교의 대결로 해석한 천혜숙의 논의를 참조할 때⁴⁵⁾ 이목에 대한 최고운의 두려움은 심상치 않다. 즉, 기우제를 둘러싼 유가와 토속신앙의 갈등과 긴장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위이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최고운의 降雨 능력이 유가의 담론으로 언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과 최고운의 긴장관계는 기우제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으로 해석된다. 기우제는 조선전기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設行되었다. 조선 초기까지도 무속적 기우제는 도교, 불교, 유교적인 기우제와 공존하였다. 그런데 성종 때에 이르면 국가의 공식적인 기우제에서 무속이나 불교식의 행사가 비판받으면서 이들이 배제되고 유가 중심의 국행의례가 정착되기 시작된다.⁴⁶⁾ <최고운전>에서 유가적인 기우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고운과 이목의 관계를 모호하게 서술하면서 유가적 기우문화의 일방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선전기 기우제의 유가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던 기층문화의 생명력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⁴⁷⁾ 조

45) 천혜숙, 앞 논문 참조.

46) 이에 대해서는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2002, 30-67면 참조.

47) 물론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고운전>의 창작연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창작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고상안의 『효빈잡기』 외에는 조선 전기까지 <최고운전>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15세기 이후에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 중기 이후 국가 주도의 기우문화에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토착신앙에 기반한 기우제가 행해졌다는 점에서도 유교식 기우제에 대한 하층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목이 최고운의 제자가 되어 유학을 배우고자 하지만, 비를 내리는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운을 능가함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는 최고운이 금돼지가 아닌 최충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또 최고운은 문화영웅이다. 天儒가 최고운을 가르쳐서 문리를 깨닫고 문장을 이루고 중국황제는 멀리서 신라에 어진 선비가 있음을 알고 감탄하였다.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승상을 딸과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시 짓는 능력 덕분이었다. 이처럼 최고운의 능력은 ‘문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입신과 출세의 방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영웅으로서의 면모는 문명에 대한 작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최고운은 최충의 자식이면서도 금돼지 세계의 신성성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적인 기우방식을 언급하면서도 비를 내려야 할 때 이목의 능력에 의존한다. 문명에 대한 작자의 지향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최고운과 이목, 최고운과 최충의 관계는 상당히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는 문명에 대한 지향과 회의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최고운은 최충의 아들이 되고자 했지만 버림받았다.⁴⁸⁾ 또 천한 종의 신분으로 정승의 사위로 출세할 것을 꿈꾸고 신라인이면서 중원의 신하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중원에 건너가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어도 그는 중원의 인물이 아닌 신라인으로 대우받는다. 중원 학사들의 질투의 원인은 그가 신라인이라는 데 있다. 이때 중원 황제는 유가문명의 중심을 상징한다. 문명에 대한 회의는 문명의 가치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문명에 대한 거리감과 소외감에 보다 가까워보인다.

최고운과 황제의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소국을 무시하는 대국에 대한 최고운의 저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최고운의 태도가 분명하지

48) 박일용은 이와는 반대로 최고운이 한미한 최충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현실적 질곡을 넘어서는 금돼지의 능력과 지향을 지녔다고 해석하였다.(박일용, 앞 논문, 2011, 22-23면.)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어린 최고운은 왜 그토록 장황하게 자신이 최충의 자식이었는지 주장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않다는 점에서 황제와 최고운의 관계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고운은 처음부터 황제와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증원황제를 만나지 않았다. 물론 황제는 최고운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최고운을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제와 최고운이 대결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최고운이 황제를 만나는 과정에서 통과한 아홉 개의 문은 사실상 최고운이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다. 아홉 개의 문을 무사히 통과하자 황제는 그가 ‘비상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황제와 같은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음식에 독을 넣는 등 황제의 시험은 계속되지만 최고운은 무사히 황제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럴수록 대우는 더욱 후해진다.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황소의 도적들을 글로 항복시킨 뒤에 최고운에 대한 황제의 총애는 극에 다다른다. 출세의 과정을 거친 최고운이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의 황제에게 저항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최고운은 “小國의 卑隸之人”라는 자신의 처지를 강하게 인지한다. 대신들의 모함은 사실상 그가 소국인이라는 데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소국인’으로서의 자각은 중국에 대해 신라인이 느끼는 민족의식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소국의 천한 인물이 겪는 좌절감은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 민족의식의 표출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민족의식의 표출이라면 최고운이 신라로 돌아온 뒤에 신라왕의 행차를 가로막았다는 죄명으로 속세를 떠난 점도 설명하기 힘들다.

황제가 최고운에게 “신라도 곧 자신의 영토이고 신라왕도 자신의 신하”라고 하자 최고운이 공중에 한 일자를 그리고 그 위로 뛰어 오르며 “이 역시 폐하의 땅입니까?”라고 묻은 것도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해석되곤 한다. 얼핏 보기에는 황제가 신하되기를 요구하고 최고운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제는 최고운을 회유하면서 “신라 또한 내 땅이다(新羅亦我之地也)”라고 한 다음에 “너 또한 내 신하다(汝亦我之臣也)”라고 하지 않고 “네 임금 또한 내 신하다(汝君亦我之臣也)”라고 살짝 바꾸었다.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너도 내 신하”라고 하지 않고 “네 임금도 내 신하”라고 하였다. 황제는 최고운이 “小國의 卑隸之人”임을 상기시키면서 최충이 최고운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중국황제 역시 최고운을 신하로 인정하

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은 최고운은 더 이상 신하되기를 바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소매에서 ‘猪’자를 꺼내 땅에 던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최충의 자식이 될 수 없고 황제의 신하가 될 수 없는, 최고운의 근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중원의 황제를 정점으로 한 문명에 대한 최고운의 거리감은 사실상 문명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비애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충과 신라왕, 황제에게 인정받고자 하지만, 결국 이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가문명을 지향하고자 하지만 그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 마지막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속세를 떠나게 된 최고운의 모습은 유교문화의 확산 속에서 상층에서는 배제되어 갔던 하층의 기우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5. 결론

이상 <최고운전>와 기우문화의 관련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선 금돼지설화가 소설 이전에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당대 문헌 속에서 찾았다. 그리고 작제건설화를 참고하여 금돼지설화가 기우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하층에서 최치원이 기우제와 관련하여 기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돼지설화가 기우문화 안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고운전>에 수용된 금돼지설화, 이목설화, 작제건설화는 모두 ‘祈雨’라는 공통의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 설화는 소설에 수용되면서 유가적인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설화에서 금돼지 자식이었던 최고운은 해동의 공자로 추앙되었던 최충의 아들로 설정되고 이목이 따르는 儒者로 형상화 된다. 비를 내리는 대목에서도 유가적인 덕목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하층의 기우설화가 유가적인 담론 안에 포섭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운전>의 최충은 최고운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

기우 대목에서도 유가적 사유가 서술되었지만 정작 비를 내린 자는 이목이었다. 최고운은 용으로 변한 이목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보낸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가적 지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기우문화를 바탕으로 한 하층적 지향과 유가를 지향하는 상층 문명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소설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질적인 두 문화의 공존은 유가적 질서 아래 하층의 기우문화를 배타적으로 정리하였던 조선전기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우제는 조선 전기 상층의 유가문명과 하층의 토착신앙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지점이었다. 기우제와 관련한 최고운에 대한 하층의 기억 속에서 금돼지, 이목, 작제건 등의 설화는 당대 지배권력이 주도하는 유가담론 안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기우설화는 유가적으로 변형되면서도 유가문명과는 끝내 섞이지 않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조선전기의 국행기우제가 유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지만, 민간의 기우문화가 유가적 질서 안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좀더 설득력을 갖추려면 조선시대 기우문화와 기우설화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박희병, 『한문소설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번역원 DB 사이트 <http://db.itkc.or.kr> 참조)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사, 2008.
이중환,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단행본

-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2002.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와 한국사상』, 범양출판부, 1987.

논문

- 정병욱, 「<최문헌전>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269-278면.
최삼룡, 「최치원의 인물설화와 <최고운전>」,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회, 1986, 336-362면.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8면.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11-143면.
박일용, 「<최고운전>과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그려진 최치원의 인물형상」, 『고소설연구』32, 고소설학회, 2011, 5-40면.
노성미, 「<최고운전>의 기우모티프와 돌섬기우제 비교 연구」, 『배달말』54, 배달말학회, 2014, 131-156면.
유광수, 「<최고운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 설화의 연원」, 『한국문화연구』3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5-29면.
유광수, 「<최고운전>의 원천소재 활용양상과 ‘의미겹침’으로서의 소설」, 『온지논총』29, 2011, 249-279면.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소설사의 한 국면」, 『고소설연구』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31-64면.

- 손진태, 『전설에 나타난 도야지 이야기-마산의 돌섬과 금도야지』, 동아일보 1935.1.10.
- 최종성,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종교학연구』16, 1997, 165-202면.
- 전덕재,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책』, 『한국사연구』160, 한국사연구회, 2013, 1-46면.
- 김상범, 『주술에서 의례로』, 『중국학보』45, 한국중국학회, 2002, 369-393면.
- 천혜숙, 『삼국유사 보양이목 설화의 전승론적 검토』,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39-65면.
- 최기숙, 『권력담론으로 본 <최치원전>』, 『연민학지』5, 연민학회, 1997, 53-105면.
- 이종필, 『경계인의 욕망과 <최고운전>』, Journal of Korean Culture 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7, 43-60면.

On the composition of The story of Choichiwon
in the context of ritual for rain

Yi, Jiyoung

This study is on the composition of early Chosun's novel, *The story of Choichiwon* in the context of prayer for rain. Choichiwon is a historical figure who lived in late Shilla. In the folk story he is the son of golden pig. Some literature of 15th and 16th tells the golden pig's legend had been before the novel. I inferred the cultural meaning of golden pig from the prayer for rain and the link between Choichiwon and golden pig from the Jakjegun myth.

The story of Choichiwon borrowed the folk tales that are linked to the prayer for rain, while the hero is characterized as the bearer of Confucian. In the novel Choichiwon is a son of Choichung who is a famous Confucian scholar, and a great Confucian. So the folk culture of golden pig's legend and the noble culture of Confucianism give rise to the strained relation. This odd coexistence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early Chosun's ritual for rain that had been transformed by Confucian.

Keywords: The story of Choichiwon(최고운전), Choichiwon(최치원), ritual for rain, prayer for rain, golden pig's legend, Jakjegun(작제건)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 ~ 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